

오피니언 리더



조우성
해남교목연구 대표
우리중앙교회 장로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4시 광주에서도 시작되는 '학교기도불씨운동'이 다음세대 회복을 바라는 교회의 희망이 될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가치관과 하나님나라 정의와의 사이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세상을 분별하는 신앙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란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대속의 은혜를 받은 기쁨을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에 심고 나누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진다면 학교와 교회, 우리 사회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찬란하게 비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을 학업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희망하는 대학교, 미래도 보장되지 못해 불안하다. 그래서 건물주나 부자백수 등 아무 걱정 없이 편할 것만 같은 직업을

더블레싱광주 학교기도불씨운동

선호하는가보다. 그래서일까 기독교인들이 거스를 수 없는 현 제도권 학교의 모순된 세대와 맞붙어 경쟁에 치여 좌절하고 소외된 친구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불씨가 광주 1천7백여 교회 40만 성도들에게도 번져나갈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지 않겠는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교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교회 주일학교에도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과 비례해서 학교에서 5%미만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나라 정의, 사랑, 자녀라는 정체성은 특히 교회 밖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다. 하나님나라 정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불의한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요 늘 바른 길에서 있는 것이다.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 같은 시대에 새벽이슬같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학교기도불씨운동'을 펼쳐보겠다는 소식은 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감동이고 은혜였다.
처음엔 불교와 무속 등 우상의 세력이 강한 항구도시 부산에서 학교기도불씨운동이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대구 등에서, 올해는 포함 등 여러 도시에서 큰불로 번지고 있다. 이 운동 집회 현장에서 고백하는 학생들의 놀라운 간증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감할 일으키면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에서 남해고등학교로 전학 간 어느 목회자 딸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 수업 시간에 진로교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했다. 7명의 학생이 손을 들었는데, 교사는 하나님이 없는 이유에 대해 수업 시간을 다 사용해 가며 설명했다. 교사는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거야? 아직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 아무도 손들지 않았다. 무거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딸은 목회자인 아버지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왜 너는 손을 들지 않았어?", "대학 가기 위해서는 생기부를 작성하는 교사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딸은 결국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음날 아버지는 학교 교장을 찾아가 딸이 비교과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말했고 다행히 기독교인이었던 교장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도록 하면서 이 일은 일단락됐다. 이후 그날 손을 들지 못했던 7명의 학생들은 함께 모여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기도하게 됐는데 이후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는 학교가 됐다

이렇게 학교기도불씨운동이 이렇저런 동기와 이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순전한 학생들의 예배는 능력이 있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됐다. 학교도 교회가 되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모든 세대를 일컫는 세우기 위하여 연합했던 광주 기독교교단체들이 이 운동 소식을 듣고 즉각 반응했다. 함께 논의한 끝에 기독교인들이 모두 모여 맘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씨를 뿌리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재정이 1원도 없었던 '광주학교기도불씨운동 추진위원회'에 1백만원씩 기부하는 헬린이가 믿음을 선포했던 성도로부터 시작됐다. 거룩한 부담을 가진 성도들이 생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과 섬기는 젊은 사역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작지 않은 금액을 이름도 없이 내놓았다. 며칠 사이에 9명의 성도들이 동참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복음의 확산을 위해 '블레싱광주 펀드'를 조성해보면 좋겠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기도 했다. 힘들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느 목회자는 어린 딸이 큰 수업을 막 마친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 자녀학자금의 일부를 내놓았다.
이제까지 15년 동안 연합사역 현장을 지켜봐 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보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를 크게 느낀 적은 많지 않았다. '더블레싱광주 학교기도불씨운동'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들을 볼 때 광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설탕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축복이지만 사용을 절제해야!

-다음세대를 위하여 설탕과의 전쟁을 해야-

현대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설탕을 포함한 당류이다. 설탕과 관계되어, 현대인 건강의 중요한 이슈이면서 성인병의 주원인이 비만이기 때문이다. 비만은 현재 세계적인 이슈로, 2024년 WHO에 따르면 1990년과 비교해 세계 비만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성인은 전 세계인구 43%가 비만으로 보고되었다. 2023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비만율이 [한국은 체질량지수 (BMI) 25 kg/m²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는데, 국가마다 비만의 정의가 다름] 32.5%로 발표되어 국내 성인 3명중 1명은 비만이다. 남성 비만율은 40%로 여성의 두 배이다. 남성 연령층에서 40대가 48%로 가장 높고, 청소년 비만율(남 15.5%, 여 8.5%)은 10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문제가 되고 있다.

2012년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Nature) 저널에 캘리포니아의 과대학 로버트 러스틱(R. H. Lustig) 교수는 <설탕에 대한 독소적 진실 (The toxic truth about sugar)>이라는 제목의 도전적인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설탕소비가 전염성 없는 질병과 관련되어 있기에, 알코올이나 담배처럼 건강을 해치는 폭품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국가에서 설탕에 대한 세금이나 구매제한을 통한 규제까지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심장병, 당뇨병 등과 같은 비전염성 만성질환 사망통계치는 먹거리로 인한 비만과 대사증후군 질병 등과 관련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당류 (설탕 그리고 특히 액상과당)가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스틱 교수는 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면, <국가는 건강을 위해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는 설탕 과다섭취를 비만의 원인으로 보아 국가 재정정책으로 설탕세(sugar tax), 비만세(fat tax) 등을 부과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여 왔다. 2014년 WHO는 하루 당류 권장 섭취량 기준을 과거 50g에서 25g으로 더 낮추었다.

성인이 하루 2,000kcal를 섭취한다면, 당류는 25g (당류 1g은 4kcal 열량이기)에, 25g은 100kcal) 미만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식약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일 평균 당류섭취량이 2015년 65.3g였고 2023년은 35.5g으로 전보다 엄청 나아졌지만 아직도 큰 문제이다.

사실 설탕의 소비는 문명의 척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서구식 생활패턴으로 갈수록 설탕 소비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설탕을 포함한 당류를 섭취하는 주요 경로는, 설탕 자체를 직접 섭취하는 것 외에도 탄산음료 또는 과일음료, 제과, 사탕류, 음식, 과일 등이다. 대표적 당류인 설탕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를 과잉섭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비만을 성인병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 서구는, '청량음료세', '설탕세', '비만세' 등의 이름으로 설탕과 액상과당 등과 같은 당류소비를 줄이는 국가적인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설탕세> 도입 법안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제 국가보다도 앞서 각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89



장찬익 선교사
이탈레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합동목사
저서, 이슬람교의 돌파구

여름을 맞이하여 이슬람권으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슬람 강의를 수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강의를 듣고 난 후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선교사가 이슬람권에서 전하는 복음 전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가요?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아브라함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종교이

기 때문에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임니다. (창11:29) 그리고 쿠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자트임니다. (쿠란6:74)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같은 아브라함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종교가 아

단기선교사가 무슬림에게 전하는 복음전도-1

입니다. 서로 다른 아브라함이고 서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둘째, 성경이 변질되었나요?
이슬람은 "성경이 변질되었고 쿠란은 652년 오스만이 쿠란을 완벽하게 편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글자, 한 문장도 변질없이 전해져 오고 있는 완벽한 알라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870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출판된 "알 부카리 하디스"에 의하면 652년의 쿠란은 여러

이슬람권의 도시들에게 전달된 뒤로 변질되어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쿠란은 116장이었고 이라크의 바그다드 쿠란은 110장이었고 바스라 쿠란은 114장이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도시들에게 전달된 652년의 쿠란이 지금 한 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현재 아랍어 쿠란의 종류가 무려 30종류나 되고 쿠란의 내용도 서로가 다 다른데 무려 다른 곳이 93,000 곳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전 세계의 22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내용은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내용상 변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수는 선지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이슬람은 예수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예수의 사명은 자신은 알라가 보낸 선지자이고 다음에 올 선지자는 무함마드라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e.or.kr>



한현우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계회총회 총회장 정서영목사
입니다. 합동계회 총회신
학은 창교도 개혁 신학의 요
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를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육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목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 학 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 학 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 서울 남한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 술 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 접수: 수시 접수 (062-266-0153)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cce.or.kr>)
- ▶ 주야간반: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생특별
- ▶ 최고의 교수진 / 실용전문가 / 실용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가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총회신학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